

온·오프라인시대, 통합교육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할 수 없었던 학생들은 집에서 원격교육을 받게 되었다.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된 원격교육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혼합적으로 이루어진 현실에서 원격교육과 현장교육의 공존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온·오프라인 등교 둘 다 원해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4명 이상은 “코로나가 종식 돼도 온·오프라인 등교를 병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온라인 등교 필요성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천재교육이 2월부터 3월까지 초·중학생 및 학부모 3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오프라인 등교 관련 선호도 조사에서 46.3%가 온·오프라인 등교를 병행하길 원했다. 응답자의 47.2%는 오프라인 등교만 하길 원했으며, 온라인 등교만 하길 원하는 학생들은 6.5%를 기록했다. 온·오프라인 병행 등교 시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인 66.8%가 오프라인 등교를 더 많이 하고 싶다고 답했다. 온·오프라인 등교 비중을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은 19.9%, 온라인 등교를 더 많이 하고 싶다는 학생은 13.4%였다.

원격수업, 선택의 문제 아니다

사교육 시장의 교육 콘텐츠와 플랫폼은 이미 AI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개인 맞춤형 학습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는 여전히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다가 코로나19로 비상을 맞게 되었다. 코로나19라는 불의의 습격으로 ‘O2O’, ‘플립러닝’,

‘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이름의 원격수업이 등장하였다. 이제 원격수업은 학교에서 더는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수업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학교 교육도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연결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학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상	사이트	주소	내용	이용 방법
유치원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seoul-i.sen.go.kr	• 집콕놀이 자료 제공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경기도교육청 놀이ON	edup.goe.go.kr/kids-love	• 유아를 위한 놀이, 활동 및 일상생활 관련 콘텐츠 제공 • 교사, 학부모용 별도 카페 고리 마련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포털 회원가입 후 이용
	충청북도교육청 i-놀이학교	www.cbe.go.kr/onlineSchool/edui_main.php	• 감염병 예방 안전 자료 및 온라인 놀이 지원 서비스 안내 • 학부모 위한 가정연계 활동 자료 제공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jib-i.kr/index.jsp	• 코로나19 대응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지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초등학교	충청북도교육청 바로학교	www.바로학교.com	• 학년별 온라인 학습 활동지 제공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내친구교육넷	www.gyo6.net	•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회원가입 후 이용
	전남교실ON	sites.google.com/view/rnscjf12	• 학년별 온라인 학습 활동지 제공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 서비스 지식(GSEEK)	www.gseek.kr	• 청소년 진로탐색을 비롯해 예체능, 4차 산업 관련 콘텐츠 등 310개 과정 제공	교사가 사이트 내 온라인 개학 콘텐츠 신청 등록
중·고등학교	전남 직업계고등학교 전문교과 학습자료	highjob.jne.go.kr	• 전기·전자, 기계, 건설, 농업, 미용 등 실무교과 이론, 실습수업에 활용 가능한 영상 링크 제공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www.adiga.kr	• 대입정보 검색 및 학습진단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mentoring.career.go.kr	• 여러 분야의 전문 직업인이 실시간 멘토링 수업을 실시하여 생생한 직업 정보 제공	교사가 사이트 내 회원 가입 후 교실 개설 승인 시 이후 이용 가능



인공지능 문제풀이 앱으로 공부하기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인터넷 강의’는 청소년의 필수 학습 도구였다. 최근엔 이 자리를 인공지능(AI) 앱이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지난 8월 10대 스마트폰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많이 쓰는 교육 앱 1위는 ‘판다’가 차지했다. 약 168만 명이 이용해 2위인 네이버 사전(65만 명)을 훌쩍 넘었다. 판다는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를 사진을 찍어서 검색하면 5초 안에 해당 문제의 풀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AI 기반의 광학문자판독(OCR) 기술이 문자와 수식 기호를 동시에 인식해 학생에게 최적화된 검색 및 풀이 결과를 빠르게 제공한다. 특정 문제집이나 강사의 강의를 따라 공부할 필요가 없는 방식이다. 하루 평균 질문 수는 600만 건 이상이며 1초당 약 69건이 업로드되고 있다. 국내에서만 매일 260만 건의 질문이 올라오며, 이는 인스타그램에 매일 올라오는 사진 분량과 맞먹는다. ‘커넥트 Q&A’는 에듀테크 기업 에스티유니타스가 만든 문제풀이 앱이다. 이 국산 문제풀이 앱은 글로벌 10개국에서 교육 부문 앱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을 포함해 캐나다, 영국, 호주 등지다.

커넥트 Q&A 역시 풀이속도가 빠르다. 학생이 전 과목에서 모르는 문제를 촬영해 올리면, 5초 안에 답을 받아 볼 수 있다. 여기에 질문과 답변 연장선 상에서 1대1 과외도 받아 볼 수 있다. 그래도 풀이가 부족하다면 15초 영상으로 상세한 풀이과정을 배워볼 수도 있다. 전문가 멘토와 1대1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음성통화 서비스도 있다. 원격수업의 확산으로 수혜를 입은 앱도 상위권에 올랐다. 교사가 학생을 모아 온라인에 가상 학급을 만드는 ‘클래스팅’은 인기 교육 앱 4위를 기록했다. 2년째 원격수업이 이뤄지면서 앱으로 알림 사항이나 숙제를 공지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학교의 일상이 된 결과다.

토익도 어플로

‘산타 토익 어플’은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독학 토익 어플로 안드로이드만 50만 명이 다운로드 받았고, 앱스토어 데이터와 합치면 약 100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 받은 인기 앱이다. 산타 토익 어플은 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틀리기 쉬운 문제를 모아서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지 보카 어플’은 토익, 토플, 텡스 등의 시험별

단어를 어원과 함께 암기할 수 있게 만들어진 앱이다. 이 어플은 토익 단어 등의 공부할 단어의 어원을 모두 찾아놓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바로 학습을 할 수 있다. 또한 LC를 대비해서 직접 단어 발음을 녹음해보고 교정해보는 서비스도 있다. 함께 암기 토익단어 어플 일명 ‘함암토’ 어플은 스터디 그룹을 형성하여 지루한 토익 단어를 재미있게 암기할 수 있는 앱이다.

교육 앱 순위

앱 이름	사용자 수
판다	168만 6091명
네이버 사전	65만 5455명
열정품은타이머	62만 9806명
클래스팅	56만 4866명
클래스카드	54만 5647명

10대 스마트폰 이용자 대상 조사. 안드로이드OS와 iOS 모두 지원하는 앱만 포함
출처: 와이즈앱·리테일·굿즈

기다림은 사치인가?



스피드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의 이른바 ‘빨리빨리 문화’는 이 시대에 때를 만난 것처럼 신바람이 납니다. 신속한 의사결정, 글로벌한 네트워크, 동시적 접속 등 이른바 IT강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투표를 해도 미국은 우편으로 보내면 최소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고, 일본은 아직까지 도장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모두 하루 만에 끝나는 우리는 분명 선도적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주는 함정 가운데 자칫 방향을 점검하지 못하고 속도를 낼 때 돌이키기 어려운 위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급함으로 드러날 때 속도는 재앙이 됩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조급증입니다. 냉장고도 ‘급속 냉각’을 해야 팔립니다. 승강기를 타자마자 2, 3초를 참지 못해 ‘단함’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웹페이지가 로딩되는 1, 2초를 기다리지 못해 ‘뒤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애도 번개탕을 해야 합니다. 복권도 즉석 복권을 사야 합니다.

파종과 수확 사이에는 기다림의 법칙이 필수적입니다. 추수 때까지는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이 파종한 농부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성급한 인생은 잡초인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은 거목은 손자 때나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증손자 때 거둘 수도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은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라고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유다가 기다리지 못해 어려움 당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려면 50년 100년 기다려야 합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절식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다가 비로소 21일 만에 응답

을 받았습니다. 만약 20일째 낙심하고 그만두었으면 그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비 오기를 일곱 번까지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만약 6번째 낙심하고 그만두었다면 가뭄을 해결하는 단비는 체험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9번 가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9번 거절해도 선의지를 꺾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열 번째 가서 또다시 기적을 일으켜 애굽에서 백성을 해방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25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노이는 120년입니다. 모세는 40년입니다. 다윗은 17년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는 그 지루한 세월의 기다림 속에 더하여 3년이라는 감옥생활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갈렙은 45년을 기다려 85세에 원하는 산지를 받았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신비합니다. 이것은 마냥 기다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오늘 현재에 전부를 걸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기다림은 정지가 아니라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진행 중인 현재형입니다.

심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근시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니까 순식간에 그 질병에서 치료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환자도 38년 동안 일

어나지 못했습니다. 만약 37년째 낙심하고 그 연못을 떠났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8년째 예수님을 만나 단번에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세계의 최고의 갑부 작가가 된 조앤 롤링은 해리포터를 출판하기 위해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지만 12개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만약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11번째 원고를 불태워 버리고 포기했다면 오늘날 그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의 작가 마가렛 미첼은 신문 기자였지만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어 무려 10년 동안 병상에서 소설을 썼습니다. 책을 내기 위해 3년 동안 무려 13개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12번째 방문에서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뿌리>를 쓴 알렉스 헤일리는 8년 동안 1백 번이 넘는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의 한 표현입니다. 그 믿음은 영광을 봅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애 3:25)

이 가을에 높은 창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보며 때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성공지기

박인용 월드와이드교회
담임목사



월드와이드교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app) 출시



언제 어디서나 월드와이드 교회 박인용목사의 은혜로운 설교와 교회소식을 내 손안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app)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법

‘안드로이드 마켓’을 클릭->검색에서 ‘월드와이드교회’ 라고 기록 후 검색하여 클릭-> ‘다운로드’ 클릭->‘동의 및 다운로드’를 클릭->설치 완료 후 ‘월드와이드교회’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치 상태를 확인

*아이폰(iPhone) 어플리케이션(app) ‘twitter(트위터)’ ‘facebook(페이스북)’ ‘me2day.net(미투데이)’ 와 같은 SNS (Social Network Service) 도 곧 출시!

박인용 목사
주일설교방송 안내



• www.wwch.or.kr

• 극동방송 라디오 FM106.9
청년설교(화, 저녁 10시10분)

‘강대국 한국’, 첨단 무기로 무장하다

국방부가 5년간 매년 약 3조 원씩 국방 예산을 늘려 2년 뒤 일본 방위비를 넘어서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4년에는 국방예산이 60조 원, 2026년에는 70조 원을 돌파해 국방전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전망이다. 국방부는 파괴력이 증대되고 정밀도가 개선된 다양한 미사일 개발을 통해 북한 핵에 대한 대응 능력을 고취하여 전력 증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군사력 세계 6위

2020년 7월 미국의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138개국 가운데 미국·러시아·중국·인도·일본에 이어 6위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은 52조 8401억 원으로 군사비 지출에서는 세계 8위권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국방비가 사상 처음 40조 원을 넘더니 불과 4년 만에 12조 원이 더 늘었다. 연평균 7% 이상 증가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종전되지 않은 휴전 국가로서 아직도 북한의 도발이 심심찮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은 절대 보유하지 말아야 할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하여 무기의 현대화, 화력 중심의 무기를 개발 및 생산해야 한다.

SLBM 세계 8번째 개발국

군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최종 단계인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번 시험발사 성공으로 SLBM 개발이 완료되면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되었다. SLBM은 잠수함 특유의 잠함 능력과 수중발사체계가 가지는 은밀성에 탄도미사일이 지닌 파괴력이 더해져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는다. 군은 1~2차례 비공개 시험발사를 더 진행한 뒤 SLBM을 양산해 실전배치할 방침이며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군의 첫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은 SLBM 발사관이 6개인 콜드론치 방식 수직발사대를 갖췄다. 콜드론치는 잠수함 발사관에서 공기 압력으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기술이다.

무기무인화 어디까지 왔나

현대는 대규모 인명 살상을 각오해야 하는 강대국 사이의 정규전보다 해역과 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 테러와 사이버전 등 비정규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무인화된 무기체계의 활용은 더 커졌다. 무인 무기는 지상·해상·공중 모든 분야에서 사용된다. 소형드론·정찰기 등 무인기와 수색정찰로봇, 구난로봇, 수상정, 잠수정 등이 운용, 개발되고 있다. 우리 군 무인기 전력은 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를 도입하면서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글로벌호크는 20km 상공에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무인 정찰기로 한번 뜨면 38~42시간 비행을 할 수 있다. 작전반경은 3천km에 달해 한반도 밖까지 감시할 수 있다. 군은 글로벌호크 외에 전방 정찰용인 군단급 국산 무인 정찰기 ‘송골매’와 서북도서 정찰용인 이스라엘제 ‘헤론’을 운용하고 있다. 송골매는 2000년에 개발을 마치고 군에 배치됐다. 길이 4.8m, 날개폭 6.5m, 최대 시속 170km, 체공시간은 4시간으로 작전 반경은 100km가량이다. 헤론은 길이 8.5m, 폭 16.6m, 최대 시속 207km로 각종 정찰 장비 250kg을 싣고 최대 52시간 동안 체공할 수 있다.

해역에서는 ‘바다의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수상정이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 무인수상정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해역을 감시할 수 있는 첨단무기다. 유사시에는 기관총을 쏘는 등 전투용으로도 활용된다. AI를 탑재해 인간과 대등한 수준의 교전임무 수행이 가능한 ‘군집 무인수상정’ 개발도 착수되며, 군집 무인수상정은 미래 해상전을 주도할 비대칭 전략으로 꼽힌다. 실시간 상황 인지를 할 수 있고 인간 지능과 유사한 교전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접적 해역에서 24시간 감시정찰을 통해 신속한 탐색과 대응을 할 수 있다. 군사용 드론은 상륙작전 시 드론과 로봇이 병사 대신 상륙작전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되며, 수송용 드론은 전투물자와 탄약을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드론은 최소 희생으로 최대 효과를 추구하는 미래 전장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이다. 항공분야의 궁극적인 무인 무기체계는 무인 전투기다. 군사 강국들은 스텔스 기능으로 대표되는 지금의 5세대 전투기에 이어 인공지능,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 1대의 유인기가 수십대의 무인기와 함께 작전을 펼친다. 무인기에게 공격할 표적과 방법만 알려주면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임무를 수행하고 기지로 귀환하도록 개발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미래형 전차 K3

육군은 미래전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한국형 미래전차 K3를 2030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에 돌입했다. K3 전차는 하이브리드 동력장치를 채택해 기동력에서 기존 전차를 압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 북부의 세계 최강 톱멜 전차군단은 독일군이 자랑하는 정예부대였지만, 결국 연료 부족으로 전차를 움직이지 못해 1943년 튀니지 전선에서 영국 몽고메리 원수에게 궤멸당하고 말았다. K3 전차는 전자기 장갑, 다충구조 특수장갑을 개념상 채택해 방호력 면에서 승무원의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미국이 2007년부터 강철보다 강하면서 플라스틱만큼 가벼운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 소재를 K3 개발에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차의 중량이 가벼우면 고속주행이 가능하므로 전투지역에서 승용차만큼 빨리 달릴 수 있다. 미국은 현재 국방부 주도하에 메타 소재를 개발 중인데, 메타 소재는 해리포터의 ‘투명망토’처럼 빛이 물체에서 반사되지 않고 반대편으로 나가게 된다. ADD는 K3 전차에 미국이 개발 중인 투명전차 체계를 개념에 포함했다. 전차가 메타 소재로 제작된다면, 공상과학 영화처럼 ‘투명전차’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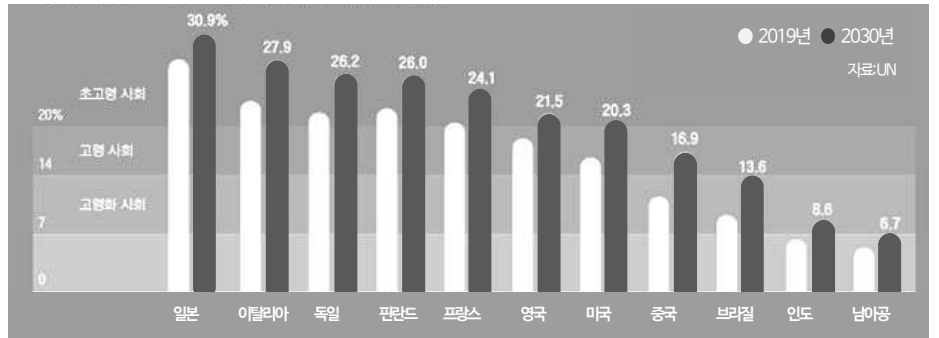
K2 소총	전 세계 모든 소총의 장점을 모아놨다. 무게는 가볍고 휴대성도 좋으며 명중률도 높다. ‘안전’ ‘단발’ ‘3점사’ ‘연발’ 네 가지 모드 갖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사격 가능. 1983년 수출을 시작으로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멕시코, 페루 등 10여 개국에서 사용.
K-9 자주포	대한민국 육군 포병 전력의 핵심 화력이다. 155mm 자주포로 모든 임무 수행 자동. 40km에 이르는 사거리와 분당 2~3발의 빠른 발사속도는 세계 정상급. 무반동에 가까운 기능성 보유. 터키, 폴란드, 핀란드, 인도와 수출계약 성사.
도산안창호함	우리나라 최초 중형급 잠수함. 3주 이상 잠항하며 수중작전 가능.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 가능. 도산안창호함 진수로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고 진수한 10개국 중 한 곳이 되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해 잠수함 수출국(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한국) 5개국 중 하나에 이름을 올림.
K-2 흑표	육군의 차세대 주력전차. 구릉지가 많은 한반도의 특수한 작전환경에 적합한 장갑, 화력, 기동성을 갖춘. 주포로 120mm 55구경 활강포 장착, 능동방어체계와 반응장갑, 포탄 자동장전 시스템 구축. 노르웨이에서 수입을 주시할.
KAIFA-50	대한민국 최초 전투기. 미국 록히드마틴사에서 제작한 F-16 A/B보다 넓은 탐지범위를 자랑하며 MiG-29를 제외하면 북한의 대부분 전투기와 공중전에서 우세한 전력이라 평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에서 수입해 운용.

고령화, 뉴시니어가 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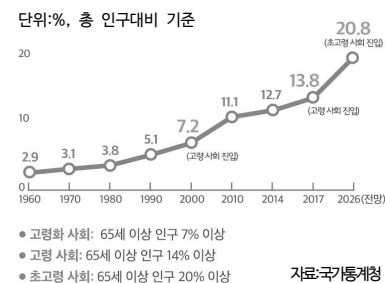
빨리지는 고령화 세계

세계는 늘어난 기대수명과 출생률의 저하로 계속되는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및 노인인구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수는 7억2천7백만 명이며 향후 30년간 노인인구 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50년에는 15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2020년과 2050년 사이 노인인구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 전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3퍼센트이나, 2050년이 되면 16퍼센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 비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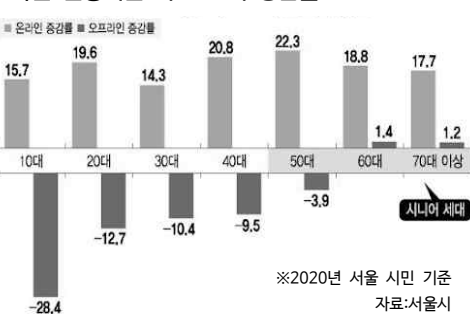
시니어 산업 시장 규모 급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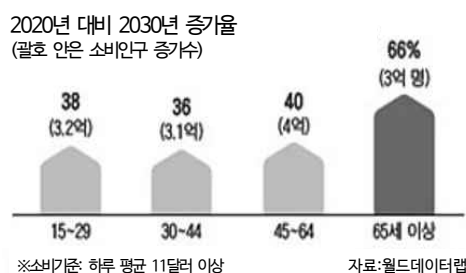
활동적인 장년 소비 시장의 중심되다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이후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도전하는 50~60대를 일컫는 말로,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한다. 이들은 외모와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고 여가 및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국립국어원은 ‘액티브 시니어’를 대체할 우리말로 ‘활동적인 장년’을 선정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보고서에서 50세 이상 인구 중 약 16%만을 액티브 시니어로 분류한 바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액티브 시니어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50대와 60대에선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18.9%)와 60대(16.7%)는 2~3%p 격차를 보였지만 70대(8.9%)는 절반 수준으로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액티브 시니어들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177만 원으로 30~40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64세 일반 시니어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15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액티브 시니어들의 소비 성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그 어느 세대보다 여유로운 소비생활을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액티브 시니어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SNS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SNS 가운데서도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 연령대별 카드 소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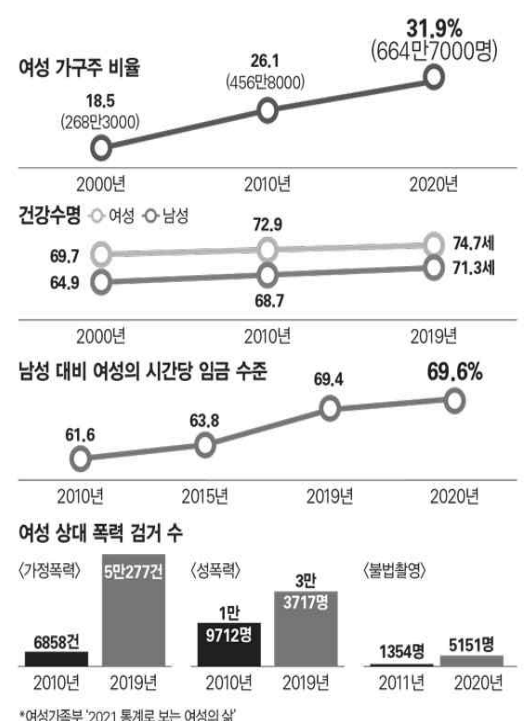
급증하는 글로벌 시니어 소비계층



글로벌 뉴시니어

이름/출생연도(국적)	주요 경력	현 직업	특징
 오세용 1954년(한국)	삼성전자 부사장, SK 하이닉스 제조기술 부문사장	스마트 브루어리대표	종이하던 양조장 창업
 모리 하마코 1930년(일본)	가정주부	게임 유튜브채널 'Gamer Grandma' 운영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령 게이머
 베티 레이드 소스킨 1921년(미국)	제2차 세계대전 때 군수품 공장 근무, 지방의회 보좌관	파크 레인저(국립공원 순찰 및 안내)	90세에 정규직 된 미국 최고령 파크 레인저
 아바 1945-1950년(스웨덴)	1972년 팝 그룹 데뷔	해체 40년 만에 새 앨범 발표	
 김철두 1955년(대한민국)	순댓국집 사장	패션모델	64세에 데뷔한 국내 시니어 모델 1호
 유재후 1956년(대한민국)	의환은행(현 KEB하나은행) 파리지점장, 경영지원그룹장(임원)	레코드숍 사장 및 클래식 음악 작가	일생동안 모은 LP로 창업
 팀 로웰 1942년(영국)	어린이 파티 엔터테이너	장난감 소개 유튜브 채널 'Grand Illusions' 운영	일생동안 모은 2만여 개 장난감 소개

여성 가구주 건강수명 증가



코로나가 불러온 교회 생태계의 변화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변화를 가져왔지만 특히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다.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시련의 시기'를 지나며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의 변화를 생각할 때가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변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주요 사회적 주체 중 하나를 꼽으라면 한국 교회를 들 수 있다. 기독교인이 절대 가치로 생각했던 대면(집합) 예배가 중단되거나 혹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곧 교회였던 전통적 사고를 뒤엎고, 더는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한국 기독교 역사 13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은 변화의 시작이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최대 변화는 온라인예배의 등장이다.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인 현재 기독교인들은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어느 정도 병행하면서 참석하고 있을까? 예상통합 총회와 목회데이터연구소 공동으로 전국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장예배 인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기독교인들은 10번을 예배드린다면 현장예배 4.9번, 온라인예배 5.1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의 5:5 비율이다. 이 정도 되면 온라인예배를 무시하거나 버리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온라인예배 만족도가 낮지가 않다. 물론 현장예배가 '매우 만족' 비율(46%)이 온라인 예배(27%)보다 훨씬 높으나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를 합한 수치(일반적으로 만족도 하면 '매우+약간'을 기준으로 발표한)로 보면, 현장예배 89%, 온라인예배 8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목회 전반에 걸쳐서 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준비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 새로운 상황은 단지 예배의 변화뿐 아니라, 전반적인 목회 영역에서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사회적 시스템이나 신앙적 환경이 절대적으로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로 인해 단지 앞당겨졌을 뿐이지, 결코 새롭거나 오지 않을 상황이 찾아온 것은 아니다.

All-Line 시대의 시작

툼 레이너는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날 교회 사역의 변화에 대하여 ①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수요 증가, ② '가나안' 교인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출 것, ③ 온라인예배에 집중하게 될 것, ④ 사역자들의 목회 훈련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훈련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균형점을 찾아 아우르는 올라인(all line) 사역이 필요한 때이다.

교회 전반에 걸쳐 '온라인'에 대한 요구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온라인'은 허상에 불과하다. '올라인'이라 함은,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사역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만나교회>는 미디어 교회를 만들어 건물이 아닌 곳에서 미디어로 예배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썼다. 올라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살펴본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온라인 교회다. 교회가 선교 대상으로 삼아야 할 사람들은 매일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성도들은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으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개발을 꼽았다. 이 모든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만나교회는 1단계에는 예배 라이브 스트리밍

을 전개했다. 2단계에서 온라인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단계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목양적인 돌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3단계에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교회 담장 밖에 있는, 그래서 예배와 목양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성도들을 섬겼다. 이에 미디어교회를 운영하는 팀 안에 미디어교구 팀을 신설해서, '미디어 동산'이라는 새로운 교구를 만들었다. 4단계는 교회 조직 전체가 온라인 역량을 갖추는 단계로 2021년 현재 진행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예배에 대해 김병삼 목사는 '온라인예배가 주는 새로운 기회와 유익'을 첫째, 미디어 예배의 가능성은 선택의 확실성이다. 새벽기도회를 미디어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둘째, 세대 간 개별화되어 있던 예배가 다시 '온 세대 예배'로 전환할 기회를 맞이했다. 세대 간 단절은 신앙이 공유되지 못하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해야 하는 부모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유익 중 하나는 가족이 함께 예배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만나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다양한 양육/훈련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마음껏 여행을 갈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랜선 제주성지순례" 영상을 제작하여 성도들에게 여행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한편, 성지순례 영상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고민하도록 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성도들의 성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성서학당, 미디어로 진행되는 가정 사역, 상담 사역, 리더십스쿨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교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야만 했지만, 이제는 정해진 시간을 공지하면, 각자가 있는 곳에서 담임목사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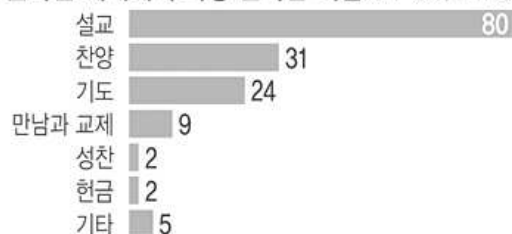
코로나19가 끝나도 성도들이 이전과 같은 신앙의 패턴으로 돌아오지 않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두려움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를 대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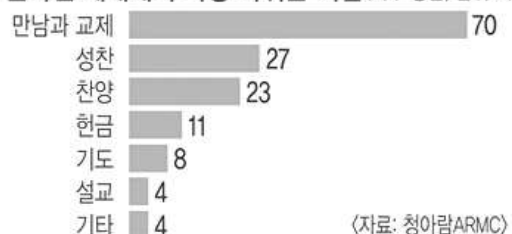


■ 가능하지만, 가능한 한 오프라인 예배를 찾겠다
■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의사가 있다
■ 충분하지 않고,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 기타

온라인 예배에서 가장 만족한 지점 (복수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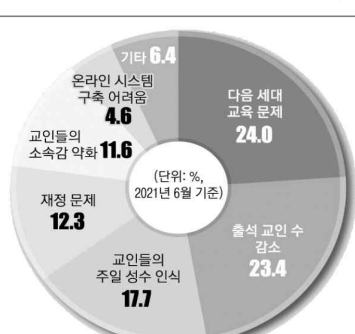


온라인 예배에서 가장 아쉬운 지점 (복수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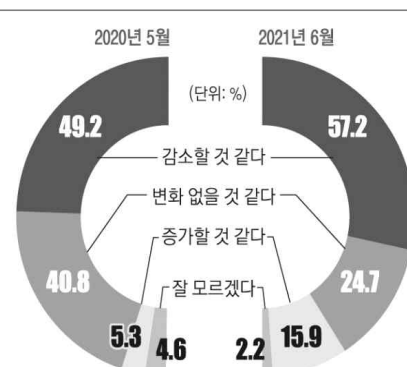


(자료: 청아람ARM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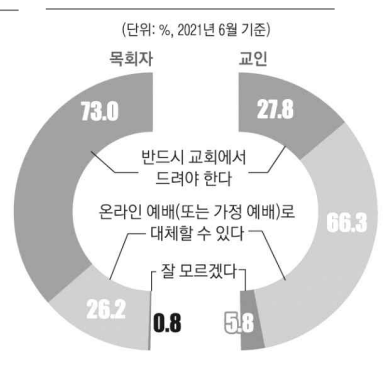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2021년 한국 교회 변화 (목회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운 점)



목회자들의 코로나19 종식 이후 출석 교인 수 예상



주일성수에 대한 의견



(자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목회데이터연구소 등)

교회는 전염병 속에서도 빛났다

사회적 위기는 어느 시대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자연재해나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은 어느 시대든 피할 수 없는 위기였다. 오프라인 예배를 했던 몇몇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는 매우 이기적인 집단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는 전염병이 확산될 때 이교도들과 달리 이웃사랑으로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봄으로써 기독교 확산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 시대 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이다.

전염병과 초기 한국교회

1878년 부산항에서 환자가 나온 후 1886년, 1890년, 1895년, 1902년에 콜레라가 유행했다. 1886년에는 두 달 동안 서울에서만 6천 명 이상의 시신이 광희문을 지나 매장되었다. 1890년에는 8만 명 이상이 일본과 한국, 만주, 시베리아에서 사망했다. 1895년 청일전쟁 후에도 두세 달 만에 서울에서 5천 명 이상이 콜레라로 죽었다.

1895년 정부는 ‘호열탈병 예방 규칙’을 발표하고, 제중원 원장 애비슨 의사를 콜레라 병원 책임자로 임명했다. 선교사들이 자원해서 도왔다.

애비슨 박사는 즉시 방역대를 조직하고 곳곳에 전담 진료소를 세우기 시작했다. 애비슨 박사는 소외된 계층의 민중도 잃을 수 있도록 쉬운 한글로 포고문을 만들어 도성 곳곳에 붙이고 멸균을 위한 손씻기 운동을 벌였다. 음식은 완전히 익혀서 먹고, 물은 반드시 끓여서 마시고, 손과 입을 철저히 씻으라고 권면했다. 병에 걸리면 기독교 병원으로 가라는 방이 붙었다. 선교 병원과 교회가 피난처로 구원처가 되었다.

콜레라 치사율이 거의 90%에 육박했던 당시 조선 백성들은 애비슨 박사의 노력 덕분에 감염자의 60% 이상이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켰다. 또한, 신분을 가리지 않는 포용과 사랑, 가족도 멀리했던 환자를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선교사의 실천이야말로 한국 민중에게 참 소망을 가져다 준 기적이었다.

콜레라가 지나간 후 정부는 선교회에 감사의 편지와 포상금을 보냈다. 선교사들의 의료 자원봉사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다.

초기 기독교 전염병 대처

전염병은 초대교회 시대에도 창궐하여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였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121~180) 황제 치하에서 근동 실루기아에서 베르스의 군부대에서 발병한 역병은 180년까지 15년간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이 병의 확산을 목격하고 기록한 그리스 의사의 이름을 따 ‘갈레노스 역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역병으로 로마제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 심지어는 3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한다. 로마는 249년부터 또다시 감염병으로 타격을 입었다. 262년까지 계속된 이때의 전염병은 도시와 농촌으로까지 파급되었는데 이번의 역병은 홍역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불리는 이 질병은 천연두나 홍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지역에서는 면역력의 부재로 피해가 컸고 치사율도 높았다. 단 하루 만에 5,000명이 죽었다는 보고도 있다.

기독교 공인이 있기 전, 세상이 역병으로 흉흉한 가운데 교회는 의연히 전염병에 대처했다. 디오니시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그 곤고한 시기가 교회에는 오히려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의 시간이었다고 한다. 이유는 교회가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돌볼 수 있던 기간이었다. 251년에 주교 키프리안은 역병의 시기가 사람들의 공의를 검증하고 인류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감염자들이 쫓겨나고 심지어 죽기도 전에 내버려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았고 심지어 자신이 감염되어도 기쁨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락탄티우스는 교회가 역병으로 죽은 자들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자 이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시기를 거치며 로마 사회의 기독교 인구 비율은 급격하게 상승했다. 역병의 위기가 오히려 교회 확장의 기회를 준 것이다.

어두웠던 중세를 뚫고, 교회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세상에는 여전히 감염병이 찾아왔다. 1527년 7월 독일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돌자 사람들은 도시를 떠났다. 하지만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환자들을 집으로 데려와 돌보아 주었으며, 자기 자녀가 6명이었지만 고아가 된 6명의 아이를 입양까지 했다. 버려진 도시에 남아 병자를 돌보고 목회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루터는 이 말씀을 기억했다. “그리

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요한일서 3:16)

자연재해나 역병이 역사의 변화를 초래하지만, 이런 큰 변화의 와중에서 기독교는 절망에 빠진 민중들에게 소망을 주었다. 만연한 질병, 배타적 이기주의가 창궐한 시대에서도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는 진실한 사랑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것이 기독교의 참된 정신을 보여 줄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역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의 발병으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홍역을 치렀다. 인수공통전염병의 위험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바이다. 이미 인류 역사 속에서도 다양한 전염병이 발생했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은 절대로 혼자 아니며 협력과 연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신뢰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다. 교회는 스스로 공동체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빈번한 모임과 활동을 통해 친밀성을 높여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공동체의 일원인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깊이 신뢰할 수 있고, 기독교인들이 시민으로서 연대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복돋을 수 있다. 특히 자기희생의 규범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울수록 사회 곳곳에서 공적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왜곡·과장 보도로 교회 신뢰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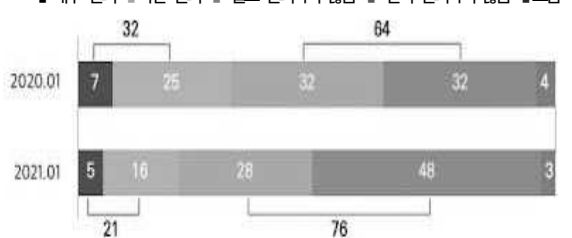
한국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코로나 전파의 주범으로 만들고, 그 프레임을 띄워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고약한 역할을 하였다. 언론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주요 언론들이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한국교회에 대하여

한 것이 2만 3천 건 이상으로 이러한 언론의 보도 행태를 놓고 볼 때, 각 언론들은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쟁하듯 보도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교회 일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전국 6만 3천 개 교회 가운데 72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0.11%로 매우 낮은 비율이다. 그리고 팬데믹 상태에서 교회 밖에서 감염되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교회가 100%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 교회 신뢰도 변화(2020.01 vs 2021.01)

■ 매우 신뢰 ■ 약간 신뢰 ■ 별로 신뢰하지 않음 ■ 전혀 신뢰하지 않음 ■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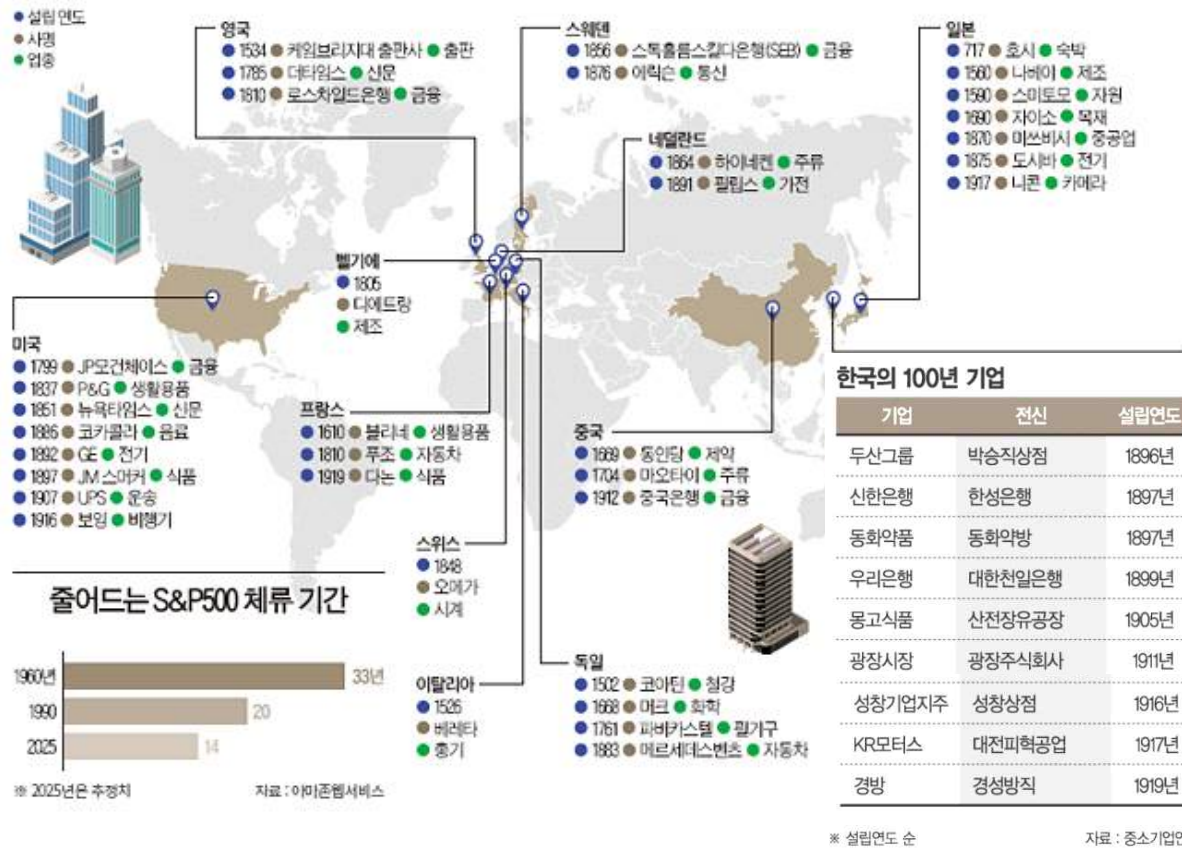


자료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정부방역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조사, 2021.01 (일반 국민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1.12~15)

100년의 신화를 이룬 기업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기업을 생존의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는 우량 기업의 미국 S&P500 지수 체류 기간이 1960년 평균 33년에서 2025년에는 14년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럼에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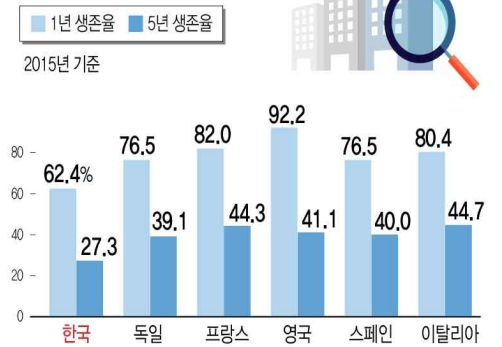
세계 주요 장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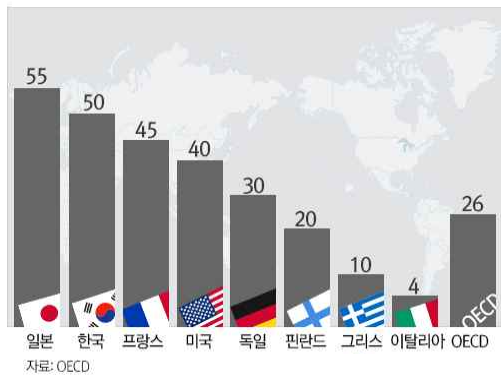
100년 이상 세계 장수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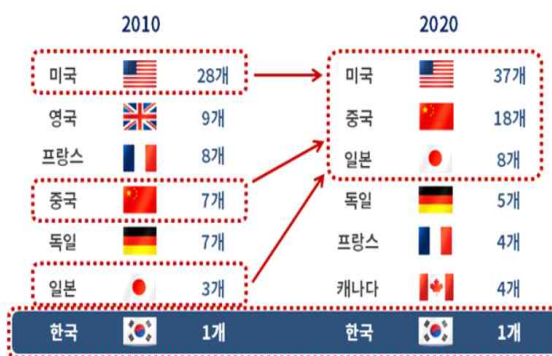
국가별 기업 생존율 비교



OECD 국가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단위: %)



지난 10년간 글로벌 100대 기업 주요국별 변동 현황



국가별 200년 이상 장수기업 비율



장수 기업 경영자가 밝힌 장수 비결

“경영자들은 옛날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실수를 인정하며, 위기에 몰렸을 때는 창업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레이널드 애슬리안
오메가 CEO
-시계
-스위스
1848년 설립



“언제나 힘들었다, 잘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늘 성장 전략을 고민해야 했다.”

호시노 요사하루
호시노 리조트 사장
-숙박
-일본
1904년 설립



“어느 한 해 포도 수확이 나쁘면 실망해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우리 사업의 특성이라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는다.”

피에로 안티노리
안티노리 사주
-와인
-이탈리아
1385년 설립



“중양집중식 경영으로는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매장 직원들이 현장에서 고객들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

존 탐슨
탐슨 회장
-수리 서비스
-영국
1868년 설립



“스포츠 장비는 소비자를 속일 수 없다. 저가 제품 전략으로는 10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

마이클 다우즈
윌슨 회장
-스포츠용품
-미국
1913년 설립



구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을의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이 한 점도 보이지 않으면서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경우를 자주 본다. 광대하여 그 끝을 도저히 알 수 없는 투명한 보자기에 푸른 물이 가득 담겨 있는 듯하여 툭 건드리면 파란색의 물감이 쏟아질 것만 같다. 그러다가 어느 날엔 높은 하늘에 새털 같은 구름이 기묘한 형상으로 수를 놓고 있다. 특히 석양에 저물어 가는 태양의 빛을 받아 묘한 색깔로 채색되어 있는 구름의 형상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이와같이 우리가 하늘에서 형상이 변하고 위치가 바뀌는 구름에 대해 감상적인 느낌이 들거나 막연하면서도 경이롭게 여겼지만, 구름에 대해 과학적인 접근으로 분석을 하고 구름의 종류와 형성과정에 대해 이론적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19세기 초반에 들어와서야 이루어졌다. 구름의 명명법과 분류법을 고안해서 현대 기상학의 기초를 닦은 분은 아마추어 기상학자 루크 하워드(1772-1864)이다. 루크 하워드는 영국 런던에서 철제기구 제조업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가정교육을 받으며 금욕적인 생활을 강요당했다. 그래서 그는 자라면서 절제되고 따분한 일상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밖의 구름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약제사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구름에 대한 호기심과 진지한 관찰은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1802년에 ‘구름의 변형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구름은 수증기가 상승하면서 응결되어 만들어진 것이며, 나아가 몇 가지 기본 형태로 구름을 분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이 논문은 기상학의 역사를 다시 쓰는 중요한 연구 성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푸른 하늘에 흩어져 변화무쌍하게 장식을 하는 구름은 물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물 입자의 크기는 다양한데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진동수가 달라지고, 진동수는 구름의 색깔을 결정하게 된다. 물 입자 중에 가장 작은 입자는 진동수가 많아 파란색을 띠게 하고, 조금 큰 입자는 녹색을, 더 큰 입자는 빨간색을 산란시킨다. 맑은 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여러 가지 크기의 입자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 산란하는 파란색, 녹색, 빨간색의 양이 비슷하여 전체적으로는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여름의 소나기구름처럼 물 입자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경우 빛은 흡수되고 산란하는 빛의 양이 적어지게 되어 어두운색을 나타내는 먹구름이 된다. 그리고 먹구름의 물 입자는 크기가 커서 그 무게로 인해 마침내 땅으로 떨어져 비가 된다.

소나기를 뿌리는 먹구름뿐만 아니라 우리는 몽게구름, 양털구름, 새털구름 등 다양한 이름을 붙이는데 루크 하워드는 이들 구름의 모양을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그는 구름의 이름을 지으면서 다른 나라 학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라틴어 단어를 사용하여 머리카락을 뜻하는 퀴온, 더미 또는 퇴적이라는 뜻의 적운, 층이나 판을 뜻하는 층운 등의 용어를 만들어 냈다. 기상학계에서는 오늘날도 하워드가 명명한 구름의 이름을 쓰고 있다.

그는 구름의 외적 특징뿐 아니라, 구름의 성질과 그에 따른 기상변화까지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가령 적운을 ‘원뿔 혹은 반구 모양으로 불룩하게 솟아오른 구름’이라고 소개하면서 ‘처음에는 작고 불규칙한 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적운이 계속 증가하도록 하는 핵’이라고 밝히고 ‘일출 후 몇 시간에 걸쳐 형성되기 시작해 정오 중 가장 더운 때에 최대로 커졌다가 다시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해거름 즈음에 완전히 사라진다고 구름의 생성에서부터 소멸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또 ‘강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형성된 적운은 곧 바람이 고요해지고 비가 올 것임을 말해 주고, 적운이 사라지지 않거나 해 질 무렵에 가라앉지 않고 계속 상승하면 밤에 천둥이 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면서 구름의 형상이 변하는 것을 보고 일기를 예고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오랜 세월을 두고 관찰하면서 직접 구름의 모습을 수채화로 그려 세밀한 관측 근거에 따라 설명을 하고 있다. 하워드는 일생 동안 구름을 사랑하고 관찰하면서 변덕스럽고 쉽게 모양을 바꾸는 구름에 대해 명확한 과학적 시각을 제공하였다.

요즘 들어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의 조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태풍이 남동쪽 먼바다에서 몰려올 때를 보면 엄청난 양의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움직이는 것을 기상관측 인공위성에 의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거대한 구름이든 혹은 점점이 떠 있는 구름이든 당시의 바람의 세기와 방향, 기온, 공기 중의 수증기양에 따라 구름의 모양과 크기가 결정된다. 강력한 소용돌이 형태의 구름이 레이더에 잡히며 다가오면 강풍과 아울러 엄청난 양의 비가 뿌릴 것을 예측한다. 이처럼 구름은 물을 가지고 있어서 지구 곳곳에 물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수증기를 함유하는 기체는 온도의 증가와 더불어 팽창하므로 지표 근처의 따뜻한 공기는 상승한다. 적도 근처의 따뜻하고 다습한 공기는 상승하여 극지방으로 이동하고 아래에서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극지방에서 적도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바람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 지표면의 지형 등에 영향을 받으며 순환을 함으로써 염분과 불순물이 제거된 물을 내륙 지방으로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바닷물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지만 녹아 있는 염분으로 인해 육상의 생물들이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분을 제거한 물을 육지로 보내기 위해 구름을 창조하셨다. 성경의 욥기 26장 7-8절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퍼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뿜뿜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다. 지구가 하늘이라고 표현된 우주의 공간에 떠 있게 하시고 물이 담긴 구름으로 둘러 싸다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13절에도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공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경의 이 말씀은 현대에 들어와서 깨닫게 된 구름의 형성과 비나 눈이 만들어지는 강수 이론을 잘 설명하고 있다. 태양열은 초당 수십억 리터의 물을 증발시키고 공기보다 가벼운 수증기는 하늘로 올라가서 공기 중의 미립자를 중심으로 응결과정을 거쳐 구름을 형성한다. 바람과 기류는 이 구름을 이동시키면서 강수 과정을 통하여 일정한 크기의 비나 눈으로 지면에 내리게 한다. 지면의 물은 강물이나 지하수로 흘러가거나 식물들에 의해 흡수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데 이러한 과정을 물의 순환이라 한다.

지구 전체를 고려하여 장기간 관측하면 지면에서 증발하는 물의 양과 강수에 의해 지면에 내리는 물의 양은 거의 같으며 지구상의 물은 평형을 유지한다. 만일 육지의 생명체에게 염분이 가득한 바닷물을 이용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다고 하더라도 바다 근처에는 괜찮지만, 내륙 깊숙한 곳에 사는 동식물들은 살기가 곤란할 것이다. 대륙의 한 가운데 사는 동식물을 위해서는 바다로부터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펌프가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바닷가에만 생물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물을 싸서 바람을 이용하여 지구 내륙 깊숙한 곳으로 운반하도록 창조하셨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키워내고 가을에 추수하여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 물을 보내주신 덕분이다.

<창조과학회 제공>



열방의 다이제스트

中, 불법 종교활동 신고자에게 포상하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불법 종교행위 신고포상제’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한 뒤, 제보자에게 최고 1천위안(약 1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당국은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자격이 없는 종교인, 무단 개종활동, 인쇄된 종교 문헌의 설교 및 배포, 예배당 밖에서의 영상물 재생, 등록되지 않은 헌금이나 가정교회 모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선교회는 중국에 약 9,7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존재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국 정부가 불법이라 여기는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중국의 종교적 박해는 2020년 심화되었으며,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교회 폐쇄와 기타 인권 유린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올해 종교인들에 대해 새롭고 엄격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면서, 성경 앱과 기독교 위챗 공개계정 등을 단속 중이다.

美, 미국인 54% 진화론 수용

마크 에크먼(미시건대)과 유진 스캇(국립과학연구센터) 연구진은 ‘미국에서 진화론에 대한 대중의 수용, 1985-2020’ 제하의 보고서에서 35년간 미국 성인 문해력에 대한 국가 설문조사를 분석했다. 이 설문 조사는 미국인 표본을 대상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는 이전의 종인 동물로부터 진화했다”라는 질문을 제공했다. 그 결과 지난 2010년대(2010~2019년)까지 진화론에 동의한 미국 성인은 54%로 집계됐다. 이는 1985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온 균형 구도를 벗어나, 최근 10년간 진화론 수용이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같은 해 퓨 리서치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미국인은 65%로 10년 전에 비해 12% 감소했다. 반면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또는 무소속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무종교 집단은 전체 인구의 26%로 늘어났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다.

탈레반 휴대폰 검사해 성경 발견하면 즉각 죽여

중동 기독교 채널인 SAT-7에 의하면 기독교인으로 의심받는 아프간 주민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탈레반에 의해 ‘즉시’ 처형될 위험이 높다고 보도했다. SAT-7은 아프간에서 사용되는 2개 언어인 다리어와 파르시아어로 기독교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 채널의 상당 전화는 최근 아프간 위기의 결과로 50% 이상 급증했다. SAT-7의 회장인 로저스 박사는 “다른 기독교인 동료들을 찾는 일은 매우 위험하므로 많은 아프간 사람들은 철저히 혼자이며 대화를 나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전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릴리즈 인터내셔널’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탈레반의 공격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릴리즈에 따르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기 전부터 매년 증가해 왔다. 특히 이슬람교를 개종할 시, 사형이나 구금에 처할 수 있는 엄격한 반개종법으로 인해 교회들은 지하로 숨어들었다.

‘친족은 3촌까지’...국민 인식의 변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친족의 범위가 ‘3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34.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범위와 관련해 직계가족 포함 4촌까지라는 응답이 32.6%로 뒤를 이었으며 4촌 포함한 6촌까지(18.3%), 직계가족까지(11.6%)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으로 느끼는 친족 범위와는 별개로 공동

사업·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 관계가 가능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8%에 달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친족 범위를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세법·상법·공정거래법 등에서는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령과 국민의 인식 간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해석했다.

월급 한푼 안쓰고 수도권에 집 사는데 8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중위가격 기준)’은 8.0배로, 2019년(6.8배)보다 크게 올랐다. 수도권에서 중간 정도의 소득을 버는 사람이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 중간 가격 정도의 집을 사는 데 8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PIR은 월급을 받아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수도권 PIR 8.0은 2006년 주거실태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다. 이전까지 수도권 PIR은 5.7에서 6.9 사이에서 등락해 왔

다.

주거복지 수준은 높아지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현저히 줄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14년 이후 5%대를 유지해 오다 작년에는 4.6%로 감소했다. 1인당 주거면적은 전년 32.9㎡에서 작년 33.9㎡로 증가했다. 작년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6년으로 전년 7.7년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 가구는 10.6년, 임차 가구는 3.2년을 거주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시민이 직접’ 교통법규위반 신고 급증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는 2016년 109만1435건, 2017년 117만8049건, 2018년 98만1932건, 2019년 134만5925건, 2020년 212만8443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한 162만 건에 달해 연말 3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의 증가세는 2016년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앱) 도입과 블랙박스의 대중화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앱 도입 이

후 신고 건수는 4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공익신고의 활성화로 2016년 이후 5년간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망사고 건수는 평균 12.5% 감소했다. 이에 신고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술개발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급증하는 공익신고에 대응해야 할 담당 인력은 부족한 상황으로 올해 7월 기준 담당자는 462명으로, 전담인력은 242명에 그친다.

한국 성인 200만 명 기본적인 읽기 쓰기 못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3년마다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능력 수준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만429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어려운 비문해 성인(문해능력 수준 1)은 성인 전체 인구의 4.5%인 약 200만

1,000여 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직전 2017년 조사 결과(7.2%)보다 2.7%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문해능력 수준 1은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학습이 필요한 성인을 말한다. 우리나라 성인의 문해 능력은 나이가 많을수록,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농산어촌에 거주할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별, 월 가구소득별 문해 능력 격차가 가장 컸다.

월드와이드 신문을 정기구독하세요

유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월드와이드 신문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꾸준히 원하는 장소에서 월드와이드 신문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월드와이드 신문 블로그(<http://blog.naver.com/wwpublish/>)에 방문하셔서 <정기구독>란에 비밀글로 주소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신문이 발행되면 제일 먼저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코로나·독감백신 같이 맞아도 될까?

변이바이러스와 돌파 감염 등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보다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전략을 취하는
상황에 독감 유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트윈데믹'의 우려가 있다. 트윈데믹 방지를 위해선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

돌파감염에 부스터샷 관심

다른 변이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돌파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접종(부스터샷) 결정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일부 국가들에선 이미 기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다.

돌파감염은 접종을 해도 항체가 충분히 생기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 효과가 떨어져 예방 효과가 낮아질 때 발생한다. 백신 예방 효과는 안센이 66.9%로 가장 낮고, 아스트라제네카 76%, 화이자 94%다. 우리나라도 돌파감염 급증에 따라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부스터샷'을 시작할 계획이다.

4분기부터 시작하는 부스터샷은 고령층과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 및 입소자 등 고위험군 등부터 맞게 된다. 부스터샷은 제약사가 권고한 대로 접종(안센 1회, 화이자·모더나·AZ 2회)한 후에 예방 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다시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안센 접종자는 2차 접종을 받게 되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를 맞은 사람은 3차 접종을 받게 된다.

부스터샷 접종에 대한 효능은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면역 취약군 등 126만 명에 대한 부스터샷을 접종한 결과, 60대 이상 연령대의 코로나19 예방 효능이 86%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코로나·독감백신 같이 맞아도 될까?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고 한다. 되도록 간격을 두고 접종하는 게 좋지만, 서로 다른 백신을 접종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예방백신 접종은 동시 접종하려는 백신의 종류가 모두 생백신만 아니면 동시접종이 가능한데, 이 원칙은 코로나19 백신에도 적용된다. 생백신은 살아있는 세균을 몸에 넣는 방식으로 면역을 획득하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여러 종류의 생백신을 접종하면 이상 반응 위험이 커져, 생백신과 생백신 간 접종 간격은 최소 4주다. 대표적인 생백신으로는 MMR, BCG, 일본뇌염, 수두(대상포진 포함),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로타바이러스 백신 등이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사백신에 속한다. 즉, 생백신과 사백신, 사백신과 사백신은 동시에 접종해도 문제가 없다.

우리가 접종하는 코로나19 백신은 mRNA 계열 백신(화이자, 모더나)과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안센)으로 두 백신은 생백신도 사백신도 아닌 완전히 다른 종류의 백신이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투여해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에 넣어 투여해 면역을 획득한다.

코로나19 백신과 다른 백신을 동시 접종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굳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날 다른 백신을 맞을 필요도 없다. 되도록 며칠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게 좋다. 혹시 모를 이상반응 추적 등을 위해서다. 혹여 동시 접종 후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인과관계 입증에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 동시 접종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건지, 기존 독감 백신 부작용에 근거해 파악해야 할 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이다.

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자 접종 시기

고령층이 접종하는 10~11월에는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이나 콜센터(1339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한 사전예약 제도가 운용될 예정이다. 접종 시작 한 주 전부터 예약할 수 있고, 대리 예약도 가능하다.

< 2021년 독감예방접종 대상자 및 접종시기 >

구분	대상자수(예산상)	접종기간
어린이	2회 접종자 1회	5,584,329
		'21. 9.14(화)~ '21.10.14(목)~
임신부	300,000	'21. 9.14(화)~
어르신	만 75세 이상	8,975,890
	만 70~74세	'21.10.12(화)~ '21.10.18(월)~
	만 65~69세	'21.10.21(목)~
총계	14,860,219	



자가격리 없는 해외 여행지

해당 정보는 9월 10일 자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보가 상이할 수 있다. 입국 허용이 가능하더라도 현지 관리자와 상황에 따라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국가	필요서류	국가	필요서류
이탈리아	72시간 전 영문PCR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승객위치 확인서	체코	접종자 & 미접종자 모두 격리 없음 ※체코 내 관광지, 레스토랑, 숙소 등에서 72시간 전 영문 PCR 서류나 백신접종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스페인	48시간 전 영문 PCR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중 1개 ※도착 48시간 전, 온라인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현지 도착 시 QR코드 제시, 기본적인 발열 체크, 대면 심사	프랑스	• 백신접종자: 영문 PCR 불필요 • 백신미접종자: 72시간 전 영문 PCR 혹은 안티젠 음성 증명서 필요 ※한국을 포함한 Green Zone 7개국만 여행 허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는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접종 후 2주 경과. 안센의 경우, 백신 접종 후 4주가 지나야 한다.
그리스	72시간 전 영문 PCR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중 1개 ※입국 24시간 전까지 그리스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그리스에 입국할 때 무작위로 PCR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10일간 시설에서 격리	스위스	백신 접종자: 72시간 전 영문 PCR 필요, 영문 백신접종증명서(여권상 신원정보와 일치) 코로나19 완치자: 영문 의료진단서(양성판정일 및 격리해제일 기재 필수) ※변이 바이러스 우려국에서 입국 시 면제 불가
크로아티아	72시간 전 영문 PCR음성확인서 48시간 전 EU인정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EU에서 사용되는 백신 2회(안센 1회) 접종증명서 중 1개 필요	터키	72시간 전 영문 PCR 필요 터키 입국 전 최소 14일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완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를 지참
아이슬란드	72시간 전 영문 PCR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입국 72시간 전 입국을 한다는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승객위치확인서- 해당 확인서는 '온라인 EU Digital Passenger Locator Form(dPLF)'라고 하며, 항공기 탑승 전까지 제출한다. 온라인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으며, 작성 시 등록한 이메일로 QR 코드가 포함된 dPLF가 발송된다.

‘알라’와 하나님은 무엇이 다른가?

“이슬람교의 알라는 구약성경의 하나님과는 같지만, 신약성경의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한 지역 교회의 청년부 수련회 강의 중 알라의 정체성에 대해 던진 나의 질문에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무슬림들을 의식하면서도 그들의 유일신 사상은 인정해 주고픈 복잡한 심경이 반영된 대답이었다. 의외로 적지 않은 한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런 식의 어중간한 답을 갖고 있다. 물론 신학자들 중에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자신의 책 <알라>에서, 알라를 유일신으로 믿는 무슬림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신론적 우상숭배자’라고 보는 시각은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시각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구약의 하나님이 다를 수 없듯, 무슬림들이 믿는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 간에도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다. 무슬림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볼 순 없으며,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본질에 대해 오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나는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공유한다는 것만으로 그들의 신이 기독교의 신과 동일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이슬람의 왜곡된 진리>의 저자 역시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슬람교의 신 알라와 무슬림들의 신앙이 어떻게 기독교와 명백하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며, 그 결과로 기독교 입장에서 이슬람교의 선교와 확장 전략이 끼칠 잠재적 위험성을 경계한다.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는 아랍의 그리스도인들

‘알라’는 아랍어로 ‘신’을 뜻하는 말이다. 아랍의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알라’다. 아랍의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른다. 한국어 꾸란에도 알라는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 무슬림들 중에는 알라가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라는 말로 포교하려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슬람의 왜곡된 진리>의 저자는, 이슬람교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꾸란의 알라가 기독교 하나님의 결정적인 자기계시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부인해서다.

꾸란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인정하면서도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라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과 대속적 죽음, 부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부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를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 이시라”(요일 5:20)고 선포하는 신약성경이 단적으로 대답해 준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도니 아들을 시안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요일 2:22-23) 이 말씀대로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들에게 기독교의 하나님은 없다.

전통적으로 이슬람교는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성령을 가브리엘 천사와 동일시해서 피조물로 본다. 무함마드가 40세 되던 해인 610년의 라마단 기간에 메카에서 3마일 떨어진 광야의 히라 산 동굴에서 그에게 나타나 알라의 계시를 전해 준 영을 가브리엘 천사로 보고, 그 영을 성령이라고 믿는다.

무슬림의 선교 행위가 호전적인 이유

이슬람교에서는 사람들이나 사회의 악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이 가진 본래의 연약함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 역시 알라에 대한 복종(‘이슬람’의 뜻)과 선한 행동에 따라 알라 앞에서 각자 자신의 의로움을 세워 가는 것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이슬람교의 다섯 기둥인 신앙 고백과 기도, 자선, 단식, 메카 순례와 같은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도 그 행위 구원의 요건이다. 실제로 꾸란은 대속의 개념없이 단지 선행을 많이 쌓을수록 악행이 제거된다고 가르친다.

꾸란은 죄를 범한 인간이 10명의 불쌍한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거나, 그들에게 입을 옷을 주거나, 노예를 해방시켜 주거나, 사흘간의 단식을 하면 알라가 속죄해 줄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Sura 5:89). 이슬람에서 최대의 보상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 참여하여 순교하는 길이다. 꾸란의 알라가 제시하는 이슬람 선교의 방법과 구원관이 결국 현재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진행되는 과격한 선교 행위의 뿌리가 되었다. 이슬람의 성전, 곧 지하드는 무슬림들의 세계 선교 방법 중에 가장 경전적이고도 핵심적인 방법이며, 테러 또한 성전으로 간주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밖에도 이슬람의 세계 선교 방법은 꾸란에 실제로 기록된 폭력적인 내용과 달리 평화로운 종교인 듯 위장하고, 무슬림들에게도 꾸란의 모순된 실체를 숨기려고 질문을 금지시키는 것과 같은 타끼야(위장) 전략, 일부다처와 다산에 의한 무슬림 인구 증가, 성전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평화적 접근 중심의 선교 ‘다와’, 아랍어 선택 과목 확대와 같은 교육 선교, 수쿠크(이슬람 채권) 발행과 같은 금융 선교, 이민 선교, 교도소 선교, 석유 선교, 문화 선교, 인터넷 선교, 미디어 선교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피터 하몬드가 제시한 ‘무슬림 인구에 따른 단계별 이슬람화 전략’에 따르면 이슬람화 1단계는 한 국가의 무슬림 인구가 1% 내외로 평화를 사랑하는 소수집단으로 잠복한다. 이슬람화 2단계는 무슬림 인구가 2-3%가 될 때, 미국의 경우 감옥에 이슬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는 제조사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킨다. 1단계의 이슬람화에 처한 한국의 경우에 무슬림들은 감옥선교보다 교육 선교를 택하였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슬람화 3단계는 무슬림 인구가 5%를 넘어설 때, 이슬람 샤리아(율법)을 통해서 무슬림들이 자치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는다. 이슬람화 4단계는 무슬림 인구가 20%를 넘어설 때로, 이때부터 폭동과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

알라의 뿌리는 무엇인가?

만약 이슬람교의 알라가 기독교의 하나님과 다른 존재라면, 그 신의 정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무함마드가 살던 당대 중동 지역의 토속 종교는 다신교였는데, 그 신들 중에 농경문화에서 숭배되던 태양신 대신 목축문화에 적합하게 더위를 식혀 생기를 더해 주는 달신이 생명을 창조한 신으로 널리 신봉되었다고 한다. 그 신의 이름이 알라였고, 당시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에 익숙해 있던 무함마드에 의해 마침내 그 신이 전 세계의 유일신으로 추앙된 것이라고 보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그럴 법한 증거들로는 각 이슬람 국가의 국기나 모스크 지붕에 초승달이 이슬람의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다거나, 1년에 한 달씩 실행되는 라마단 금식 기간이 음력을 기준으로 불규칙하게 정해진다는 것, 지금도 메카의 카바 신전을 방문하는 무슬림들이 행하는 여러 종교적 의식들 가운데 무함마드 당시의 아랍 토속 종교 의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슬람교가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는, 사람으로 성육신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하고도 합법적인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함으로써 심판주로서의 알라의 공정성에 흠집을 냈다는 사실이다. 범죄에 대한 심판이나 용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과 같은 합당한 근거를 기준으로 삼은 이후에야 효력을 발휘한다.

이슬람교는 종교의 하나로서 보호받아야 하고, 알라에 대한 무슬림들의 신앙심 역시 마땅히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그들이 믿는 알라가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여기려는 그들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꾸란의 알라와 성경의 하나님 중에 세상의 이치나 인류 보편의 양심 그리고 진실한 역사성의 차원에서 누가 창조주 신의 자격에 부합하는가를 정당하고도 설득력 있게 가려내는 작업이 이슬람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의 주요 과제다.



안환균 목사

- 그말씀교회 담임, 변증전도연구소장
- <기독교 팩트체크>(두란노),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가>(규장)

기독교의 핵심질문에 26권의 변증서로 답하다
(기독교 팩트체크)에서 발췌하였다.

Good News



당신을 참 행복으로 이끄는 리빙웨이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곧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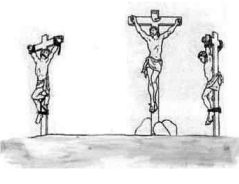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인 참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자기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그(죄)의 길을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란,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을 좇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낳게 합니다.

3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그 무지한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삯인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그 죽음에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4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후에도 자기 뜻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죽음 후에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1	1		5			8			
						10		10	
	4				9			11	11
2				13					
		3					12		
3	4			14	14				
			6						16
	6				15	15		17	
7			7						
8						16			

11. 한쪽이 막힌 대나무 통 속에 천일염을 다져 넣고 황토로 봉하여, 높은 열에 아홉 차례 거듭 구워 내어 얻는 가루
12.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13. 화장품을 바르거나 문질러 얼굴을 곱게 꾸밈
14. 등장인물의 나이, 성격, 특징에 걸맞은 모습으로 얼굴과 옷차림을 꾸밈
15.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분 또는 사람이 상황이나 일, 사물과 맺어지는 관계
16. 한 아이가 술래가 되어 숨은 아이들을 찾아내고, 술래에게 잡힌 아이가 다음 술래가 되는 놀이
17. 집이나 근무지 따위에서 벗어나 잠시 밖으로 나감

10. 동물의 몸을 싸고 있는 껍질을 벗겨서 가공한 물품
11. 남의 사정 따위를 몰래 살펴 조사하는 사람
12. 어떤 일이나 사건의 중심이 되어 그것을 밀고 나가 실행하는 힘
13.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
14. 어떤 일을 직접 일으킨 주동 인물
15. 철이나 구리, 납 따위의 비금속을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으로 변화시키고,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약을 만들려고 하던 화학 기술
16. 어떤 일에 처음 나서서 일이 서투른 사람

<지난 9월호 정답입니다>

금	자	탑		피			잠	꼬	대
연		승	부	차	기		수		화
	여	권			억	강	부	약	
	드			독		등		도	마
거	름		장	학	금		멀		구
식			사		수	세	미		잡
증	명	사	진		강			추	이
	당			출	산			도	
	자	물	쇠			신	고	식	
승	리		퇴	직	금		모		

가로문제

1. 늦가을에 식물의 잎이 적색, 황색,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
2.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들 사이에서 쓰이는 몸짓과 손짓에 의한 의사 전달 방법
3. 좋지 않은 일이나 상태 등을 더욱 심해지도록 부추기는 것
4. 학교나 학원 따위에 등록할 때 내는 돈
5. 완전히 잠이 들지도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아 정신이 어렴풋한 상태
6. 오이, 무, 마늘 따위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에 절이고 양념을 하여 오래도록 먹을 수 있게 만든 반찬
7. 코나 목구멍, 기관지 등의 호흡기 계통에 생기는 질병
8.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음
9. 병들거나 다친 사람을 곁에서 보살피며 시중들어 줌
10. 특정한 시기에 대중의 인기를 얻어 많은 사람이 듣고 널리 부르는 노래

세로문제

1.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로운 처지나 오래 건디지 못할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어떤 조직이나 단체, 기관 등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3.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하지 않은 물질
4. 건축이나 토목, 비석, 조각 따위에 쓰일 돌을 떠내는 곳
5. 뜻밖의 긴급한 사태에 쓰기 위하여 마련하여 둔 돈
6. 조금 이르다고 할 정도로 열런
7.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8. 수면 중에 발작적으로 일어나서 일상적인 행동을 하다가 다시 잠에 들곤 하는 병적 증세
9.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우려낸 율물을 떠나어 달인 검붉고 짭짤이 나는 액체

- 정답은 2021년 11월호에서 확인 바랍니다.
- 핸드폰으로 찍어서 정답을 보내주신 분은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010-7152-4460)

북한 복음화, 예배의 기름부음, 열방을 향한 뜨거운
선교비전, 차세대 리더십양육과 이 땅의 문화변혁의 리더십을
꿈꾸는 교회



월드와이드교회는 건강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노회 소속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 교회

순개강축제 ■ 9월 5일 ■ 말씀 암송



▶ 부평목장



▶ 비전목장



▶ 요셉/기드온

주일학교 여름 사역



▶ 유년부



▶ 유치부



담임목사님
대면심방



◀원데이밴드
클리닉
화요전도팀▶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실업인선교회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산2목장
김미자집사

저의 남편은 지금의 화성시에 창업하기 전 플랜트 회사에서 30여 년간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년 7월 개업 예배 후에 작업장이 협소하여 2017년 12월에 현재 공장으로 이전하여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며 늘 마음 한구석으로 소망하던 것은 우리 공장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것을 소유하기엔 꿈도 꾸지 못할,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욕심을 깨닫고 뭔지 모를 답답함이 물려움에 주눅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경매로 인해 저렴한 금액의 공장 건물을 낙찰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경매 사이트도 뒤적이게 되었고 경매물건 알선업자와의 면담도

여러 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예배시간에 ‘경매 물건’에 대한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감과 동시에 아픔이 있는 눈물 젖은 것에는 욕심을 버리자 다짐하게 되었고, 곧바로 기도 제목을 바꾸어 경매에 대한 마음을 비우고 저희에게 맞는 것을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다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 방향에 맞추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도하였지만, 어느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저희에게 주신 마음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설정해놓기에 새벽예배를 수시로 작정했다가 수시로 무너뜨리기를 여러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도 제목이 있기에 기도는 쉬지 않았습니다.

공장부지 매입 건으로 너무 간절히 기도함에도 아직 시기가 맞지 않나보다 하면서도 서운함이 앞섰고, 마땅한 매

물이 나왔지만, 은행의 대출문제 응대가 늦어져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매물 건이 다른 매입자에게 넘겨지기를 두어 번.....

공장 임차 기간만료일은 점점 다가오므로 다급함이 앞섰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응답하셨을 텐데 저희 부부가 듣지 못하고 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하여 구하는 것은 계속되되, 저희 부부가 선택하고자 할 때마다 저희의 가야 할 길이 아니거든 아버지께서 차단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공장 매입을 위해서는 많은 금액의 대출이 필요하며, 필요한 금액의 대출이 안 될 시엔 집 담보까지 해야 할 상황인지라 남편과의 의견 차이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간구한 내용대로 안성맞춤인 공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계약까지 마친 상황이며 9월 말일에 잔금까지 치르게 되면 그토록 오랫동안 부르짖었던 기도의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미완성인 상태이기에 반신반의함이 있지만, 그저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 부부가 주님 안에서 늘 한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뜻하지 않게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것들로 인해 놀림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합심하여 한건 한건 매듭짓게 하시고 그로 인해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 하나님께 무한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던 일, 중보기도자로 저희 부부에게 주일마다 그 기도의 자리로 권유를 받고 많은 부담이 따랐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였기에 큼직한 부담감을 안고 그저 머리 숙여 순종하여 사모함으로 감당하는 일 등등..

그동안 기도로 응답해주신 것들을 돌아볼 때마다 저희 부부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주님 안에서 더욱 단단한 뿌리를 내려가는 가정, 사업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의 새봄을 열어주는 월드와이드 신문을 소개합니다

경제, 연예, 문화, 창조과학, 교육, 의학, 역사, 건강, 성공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이슈를 선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실으실 수 있습니다. (3면) 매월, 교회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여는

창구의 역할이 됩니다.

-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들고나가 길거리 전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자체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물처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 발행, 배달까지 담당해 드리므로

편집부나 출판부가 없는 중·소 교회의 경우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 매월 최소 3천부에서 2만부까지 다양한 분량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032-501-9686

월드와이드신문과 함께하세요

신문이 필요한 분은 10부, 20부, 50부, 100부 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대금은 받지 않으며 원하시면 후원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100-021-800947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와이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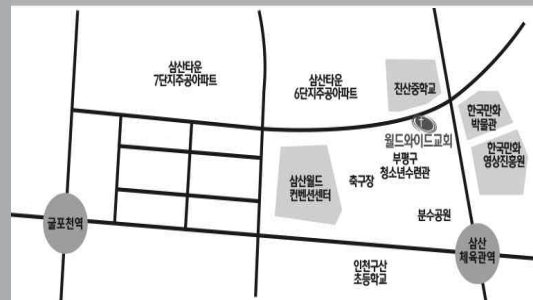
박인용 담임목사 주일설교 안내

- www.wwch.or.kr
- 라디오 극동방송 Fm106.9
- GOODTV(매주 목요일 오전 5시, 매주 토요일 오전 5시 50분)
- C3TV 인터넷 방송
- C3TV 모바일방송 KTF**91-302n
- 스카이라이프채널 Ch414

월드와이드교회 예배시간안내

	부서	시간	장소
주일	1부(축제예배)	오전 09:00	지하1층 본당
	2부(축제예배)	오전 11:30	지하1층 본당
	3부(청년예배)	오후 03:00	지하1층 본당
	4부(테마예배)	오후 05:00	지하1층 본당
주중	화요중보예배	오전 10:15	지하1층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08:00	지하1층 본당
	목요심야기도회	오후 09:00	지하1층 본당
주일 랜드	영아부(해피랜드 1~4세)	오전 11:30	2층 해피랜드홀
	유치부(판타지랜드 5~7세)	오전 11:30	2층 판타지랜드
	유년부(드림랜드 1~3학년)	오전 11:30	3층 드림랜드홀
	초등부(조이랜드 4~6학년)	오전 11:30	3층 조이랜드홀
	중·고등부	오전 1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청년(요셉/기드온)	오후 03:00	지하1층 본당
국제 지역	영어예배	오후 02: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미얀마예배	오후 03: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카렌족예배	오전 09: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월드와이드교회 오시는 길



축복의 불루오션
월드와이드교회
Worldwide Community Church

- 주소: (우)21343/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8-3 도로명) 인천 부평구 삼산동체육관로 82
- 전화: 032)501-9686~7
- Fax: 032)503-9686
- <http://www.wwch.or.kr>

하반기 전도 집회와 킹덤 파워(Kingdom Power)를 위한 전교인 **3월 31일** 금식기도

2021
10.4^(월) - 11.28^(주일)

[참여 원칙]

- 먼저 리더십(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장지기, 순장부부, 교사, 코치 등)이 우선 필참합니다.
- 한 끼 금식(5000원)을 통해 북한동포를 위한 금식헌물을 드립니다.
- 기도제목을 가지고 한 줄 한 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월드와이드교회 일정

- 승리기도회
9.29(수)-30(목) 저녁 8:00, 장소: 본당
- 전도집회 발대식
10.17(주일) 1,2,3부 예배, 장소: 본당
- 어린이를 통한 온가족 천국 백성 초청 집회
11.28(주일) 1,2부 예배, 오후 3시

※11월 29일(월)부터 12월 18일(토)까지
2021년 세이레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교회